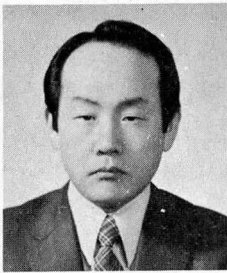


'89 양돈이슈

## 양돈불황의 원인과 정부대책



김 정 응  
(다다상사 대표)

관계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농업경제 전문가도 아닌 필자에게 이런 제목이 주어진 것부터 좀 잘못 된 것이지만, 아마도 25년간 축산관련업계에 종사를 했고 선진양돈국 방문을 자주 하니 “네 의견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이 제목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란 점을 전제로 하고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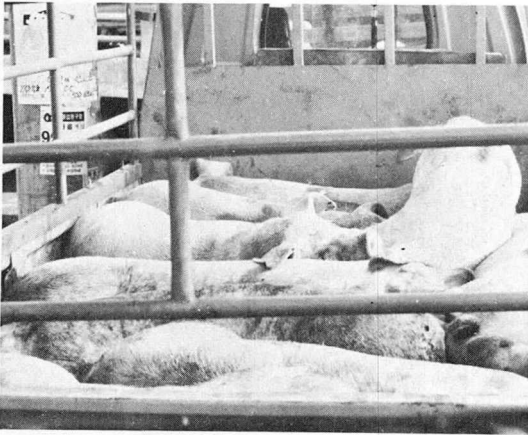
양돈불황의 원인은 간단명료하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육 가격이 떨어졌고, 따라서 생돈(육돈) 가격도 생산비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두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막을 대책은 없겠는지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6개월전, 1984년 4월에 육돈 가격이 10만원선을 훨씬 상회하여 왔으나, 금년 4월부터는 10만원선에서 하락 국면에 들어가 11월에 접어들면서 육돈 가격이 생산비 수준 이하로 크게 밀돌고 있다. 실로 5년만에 오는 심각한 불황이다. 과거의 불황기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회복시기까지 13~1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이를 근거로 단순히 예측을 해 보면 1990년 5월이나 가야 육돈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결국 지난 5년간 국가경제의 급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작년에는 돈육 수요가 국민 1인당 연간 정육기준 10kg까지 증가하는 좋은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이 증가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전체적인 국가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작년부터 노사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장기 파업사태가 전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저가(低價)의 쇠고기 수입량도 크게 증가했으며, 물가 상승률도 한자리 숫자를 실

## 송년특집기획/ '89년을 보내며, 이 문제를 생각한다.



제로 넘어간 상황에서 돈육소비 시장의 수요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불황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사육두수가 '88년 1월에 비해 30% 이상(양돈사료 생산량 통계로 환산한 수치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가 오늘의 양돈불황을 초래한 것으로 믿어진다.

불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길은 돈육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급을 조절하는 길임을 누구나 아는 상식이나,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극심한 불황이나 최고조의 호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양돈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 돈육수요 예측기관의 확충

양돈잡지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에는 돈육 수요 예측을 하는 전문기관이 없는 것 같다. 축협 중앙회에 축산관측과가 하나 있는데, 몇 명의 전문가가 돈육 수요를 예측하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정부의 축산물 장기수급계획에도 예시된 바와 같이 돈육은 앞으로 육류 수요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정부가 보다 더 많은 예산과 전

문인력을 투입하여 보다 정확한 돈육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 그리고 국내 수요에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모두 반영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전산화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조속히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제대로 돈육 수급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육두수 통계조사의 과학화

모든 100두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는 가족경영 양돈농가가 전체 사육두수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농가수가 23만호가 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100~999두까지 사육하는 농가가 지난 1년 사이에 그 사육두수를 32% 증가시켰다고 발표되어 있는데, 과연 표본조사가 이같은 사실을 반영했는지도 의문시 된다. 따라서 현재의 통계조사 방법이 과연 과학적이고 정확도가 높은지 재검토 해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공급조절 수단의 강화

공급조절에는 단기적 조절과 장기적 조절로 구성되는데, 단기적 조절에는 비축이나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의 방법과 수출입에 의한 조절방법이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현재의 중앙도매시장이 돈육의 수요공급을 활발히 도울 수 있도록 가격형성 기능을 활성화 해야 하며, 가격체제 또한 도매시장에서의 지육 등급화 및 소매시장에서의 부위별 차등가격제 및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이 우선된 후에는 가능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은 직접적 방법이

아닌 비축 및 수출입 등에 의한 간접적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공급조절은 돈육 생산조절, 즉 사육두수의 조절을 뜻하는데, 현재의 등록·허가업체에 국한한 감축명령 제도로는 그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와 정부가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된다.

## 양돈산업의 발전 모델의 확정

양돈산업 발전 모델의 확정에는 앞에서 언급한 생산조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양돈산업 구조의 현대화, 그리고 양돈농가의 소득과도 직결되고 앞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의 발전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2개의 생산자단체, 정부, 학계, 그리고 관련업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모델을 지금 결정해 두지 않으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일본과 같이 실패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돈육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돈육 수출국인 덴마크와 화란의 양돈산업 구조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모든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모든 50두 규모이다. 또 고용인을 두고 양돈을 하는 양돈농가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모두가 가족노동력으로 양돈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모두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생산원가도 싸지고 생산성도 향상되며, 따라서 국제경쟁력도 있게 된다고 한다. 가공·유통분야는 양돈농가가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이 직접 투자해서 운영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66

양돈업을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만들어 주고, 도시 노동자와 농촌 농민간의 소득 균형을 이루고,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양돈산업 발전 모델을 가족노동력 중심의 양돈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하도록 중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99

생산조절을 하려면 감축명령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관계 법규에 의하면 모든 50두 이상 농가에 게만 감축명령이 가능한데, 이것마저도 모든 100두 규모로 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모든 100두 이상의 규모가 되지 않는 한 감축명령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따라서 생산조절은 불가능해 진다.

양돈업을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만들어 주고, 도시 노동자와 농촌 농민간의 소득 균형을 이루고,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양돈산업 발전 모델을 가족노동력 중심의 양돈업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하도록 중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모든 50두 규모 이상은 현재의 사육두수를 동결시키고, 앞으로 증가하는 돈육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급량을 생산할 모돈수를 농가당 50두를 최고 상한선으로 한정해서 선별 지도·육성해 나갈 경우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현대화 될 것이며,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초기단계가 끝나면 도농간의 소득균형상 필요



합원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조금 제도

미국 이외에도 자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EEC에 다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자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연구해서 자조금 관계법안이 통과되면 이의 운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제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양돈농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제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축산업협동조합의 유통사업 강화

덴마크의 협동조합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표본적 조합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도축장이 협동조합 산하에 있고 중앙 경매시장의 정육 가격도 매주 협동조합이 결정하고 돈육 수출산업도 모두 협동조합이 전담하고 있고 육가공산업도 대부분 직접 투자·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협동조합 임직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덴마크 협동조합의 조직, 경영, 사업내용 등을 배워서 우리나라 축산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금의 이 양돈불황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인식하고 정부 정책당국자들과 생산단체 지도자들, 유관업계 지도자들 및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진지하게 협의해서 1990년대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해 질때 모든 50두 규모를 75두 규모로, 그리고 100두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약 35개의 중소기업 양돈장들은 앞으로 종자돈 개량 및 생산업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시킴으로써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들 전문인력들의 연구 노력에 의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종돈 보급과 함께 상업적 돈군을 사육하는 전업 및 가족경영 양돈농가에게 보급될 것이므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같은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산업내 규모의 갈등이 해소되고 산업구조가 건전해 질 것이고, 축산업협동조합도 착실한 성장과 아울러 의미의 조